

<수능완성 고전소설 중요 작품 목록>

영역	작품	수록	수록 예정
고전 소설	하생기우전	○ PART 1	
	이춘풍전	○ PART 1	
	숙영낭자전	○ PART 2	
	토공전		X
	옥주호연	○ PART 2	

- 중요 작품 목록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영역부터 중요도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 본 자료는 고1, 2, 3 학력평가 및 역대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험생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평가원 문제는 배제하였습니다.

- 작품 목록에 포함된 작품들은 본 자료 수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2 EBS 수능완성'에서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본 자료는 수능완성 고전소설 주요작품 문제지 PART 2로 숙영낭자전(4세트), 옥주호연(1세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김현중 수능국어'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년 고1 11월 - 숙영낭자전]

조선(朝鮮) 세종대왕(世宗大王) 때,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성은 백(白)이었고 이름은 상군(尙君)이었다. 부인 정씨(鄭氏)와 이십 년을 동거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늘 슬퍼하였다. 명산대찰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 후, 그 덕택으로 기이한 꿈을 꾸고 후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점점 자람에 따라 용모가 준수하고 성품이 온유하며 문필이 자못 유려(流麗)하였다. 그의 부모 백상군 부부는 외아들을 천금인 양 애지중지하였고 이름을 선군(仙君)이라 지었다. 부부는 아들에게 알맞은 배필을 얻어서 슬하에 두고 재미를 보려고 널리 구혼을 하였으나 한 곳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항상 근심으로 지냈다.

이때 숙영 낭자도 천장에서 선군과 희롱한 죄로 옥연동에 귀양 와 있었는데, 선군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자기와 천생연분(天生緣分)인 줄 모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라. 낭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인간 세상에 귀양 와서 백년간약을 맺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낭군이 다른 가문에 구혼하면 우리의 천생연분은 속절없이 되리라.’

하며 슬퍼했다.

선군의 나이가 열여섯 살 되던 어떤 봄날, 선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몸이 노곤하여 책상에 기대어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문득 녹의홍상으로 단장한 낭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 번 절하고 옆에 앉더니,

“낭군은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 있기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군은,

“나는 진세(塵世)의 속객(俗客)이요,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오?”

하고 의아하여 물었다. 그러자 낭자는,

“낭군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仙官)이셨는데, 요지연에서 저와 서로 희롱한 죄로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귀양을 보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연을 이루라 했나이다. 그런데 낭군께서는 어찌 이것을 모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려 하시나이까? 낭군은 저를 위해 삼 년만 기다려주시옵소서.”

선군이 깨어나 보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그러나 꿈속에서 본 낭자의 얼굴은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 땅에 떨어질 만큼 아름다웠으며, 조각달을 수놓은 듯한 자태는 천상의 밝은 달이 구름 속에서 막 솟아나는 듯했다. 선군이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붉은 입술에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말하던 낭자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옥 같은 낭자의 얼굴이 눈에 삼삼했다.

선군이 꿈에 본 낭자를 잊지 못해 병드니,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네 병세를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도다. 무엇 때문인지 숨

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사실대로 말해 보거라.”

“며칠 전 꿈에 옥 같은 낭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저는 월궁선녀인데, 그대와 천생연분이 있나이다. 다른 곳에 구혼하지 말고 저를 삼 년만 기다려 주소서.’하고 갔나이다. 그 낭자를 생각하니, 하루가 삼 년처럼 느껴지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삼 년을 기다릴 수 있겠나이까? 이로 인해 저도모르게 병이 골수까지 깊이 들었나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병을 앓던 선군은 삼 년을 기다려야 숙영 낭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금기를 깨고, 숙영 낭자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지낸다. 그런데 선군이 부모의 명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였을 때, 숙영 낭자는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매월의 모함으로 자결하고 백상군은 임 소저를 선군의 새 부인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선군은 장원급제한 후 숙영 낭자가 보고 싶어 바빠 집으로 향한다.

이에 상공이 기쁜 얼굴로 한림에게 이르기를,

“너는 얼굴이 두목지처럼 우아하고 풍채도 뛰어난데, 이제 한림학사라는 벼슬까지 하게 되었도다. 너 같은 대장부가 어찌 한 부인만 둔 채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널리 어진 낭자를 구했는데, 이 고을 임 진사 댁 낭자가 천하의 미인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임 진사에게 청혼하여 임 소저를 네 배필로 삼고, 바로 오늘 혼례를 올리기로 정했노라. 네 뜻은 어떠하냐?”

하며 백방으로 선군을 달랬다. 그러나 선군이 대답하기를,

“내려오다가 꿈을 꾸었는데, 낭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나타나 가슴을 만지면서 말도 제대로 못 하더이다. 아무래도 낭자에게 무슨 연고가 있는 듯한데, 무슨 일이 있었나이까? 또한 저는 낭자와 맺은 언약이 소중하오니, 이 문제는 집에 내려가 낭자의 말을 들은 후에 결정하겠나이다.”

하고 길을 재촉하여 임 진사 댁 앞을 그냥 지나가려 하는지라. 상공이 한림을 붙들고 달래어 말했다.

“이것은 양반의 자식이 할 행실이 아니로다. 혼인은 인간의 대사라.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거늘, 너는 어찌 이토록 고집을 부리느냐? 또한 네가 이대로 가는 것은 임 소저의 평생 대사를 그르치는 것이니,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로다.”

한림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재촉하니, 하인이 한림에게 여쭙었다.

“대감님의 말씀도 말씀이려니와, 만약 한림께서 그냥 가시면 임 진사 댁의 낭패도 매우 심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한림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그러나 한림은 그 하인을 꾸짖어 물리치고 백마를 몰아 달려갔다. 상공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뒤따라오더니, 집 앞에 이르러 선군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 뒤에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소리가 나더구나.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낭자에게 물으니, 낭자가 내가 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라. 수상히 여겨 부모로서 약간 경계하는 말을 했더니, 낭자가 여차여차하여 죽었구나. 이런 망극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선군이 대경실색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낭자가 죽었나이까? 어찌 아버님께서 제게 이리실 수 있나이까? 저를 속이고 임 소저에게 장가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으십니까?”

하며 미친 듯이 중문으로 달려 들어가니, 동별당에서 나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문밖까지 들렸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淑英娘子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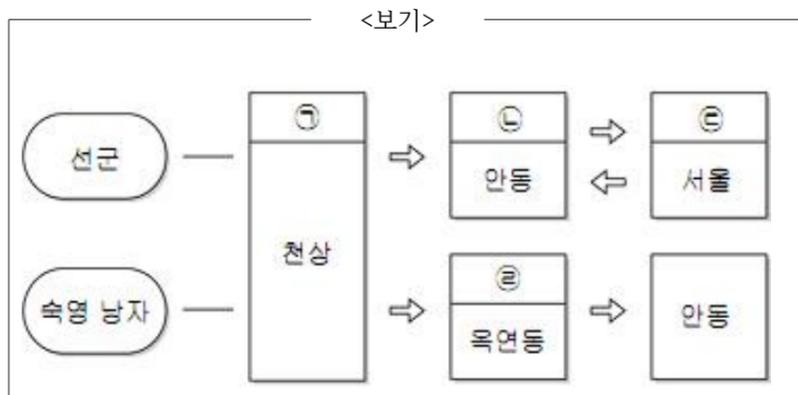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구체적 시대를 언급하여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를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부정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2. [A]와 [B]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적 명분을 바탕으로 청자에게 충고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와 청자의 처지를 드러내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청자의 신분이 회복될 것임을 언급하며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⑤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딱칠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3.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인물의 이동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군’은 자신이 ㉠에서 ㉡으로 내려온 사실에 대해 열 여섯 살이 되어서 듣게 된다.
- ② ‘선군’과 ‘숙영 낭자’가 ㉠에서 각각 ㉡과 ㉢로 가게 된 원인은 동일하다.
- ③ ‘선군’이 ㉡에서 ㉣으로 떠난 뒤 ‘백상군’은 ‘숙영 낭자’를 의심하게 된다.
- ④ ‘선군’이 ㉣에서 ㉡으로 돌아오려 한 것은 ‘숙영 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 ⑤ ㉢에 있던 ‘숙영 낭자’가 ㉡에 있는 ‘선군’의 꿈에 나타난 후 ‘선군’은 ‘숙영 낭자’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린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숙영낭자전」은 천상계의 선관과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온 후 겪게 되는 재회, 열애, 결혼, 사별, 재생, 승천 등의 이야기가 작품의 표면을 이루고 있고, 봉건 사회의 규범과 유교적 도리에 맞선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욕구가 그 이면을 이루고 있다.

- ① ‘선군’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천상계로부터 귀양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 ② ‘선군’이 결혼할 당시는 부모가 구혼하고 육례를 갖추어 혼인하는 것이 유교적 도리였군.
- ③ ‘선군’이 ‘숙영 낭자’와 사별한 것은 ‘백상군’이 봉건사회의 규범에 따라 임 진사 덕에 구혼을 했기 때문이군.
- ④ ‘선군’은 ‘숙영 낭자’와의 사랑 때문에 부모가 청혼하여 인연을 맺은 임 진사 덕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것이군.
- ⑤ ‘숙영 낭자’가 ‘선군’에게 다른 가문에 구혼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은 천상에서의 인연을 지상에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군.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년 고2 3월 - 숙영낭자전]

[앞부분의 줄거리]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선비 백상군(白尙君)과 부인 정 씨는 명산대찰에 빌어 외아들 선군(仙君)을 얻는다. 장성한 선군은 꿈에 나타나 천생의 연분임을 알린 숙영과 사사로이 혼인하여 팔 년 동안 행복한 세월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 백상군은 아들에게 과거 응시를 권유한다.

“나라에서 이번에 과거를 실시한다 하니 너도 꼭 응시하여라. 다행히 급제하게 된다면 조상을 빛내고 부모도 영화롭지 않겠느냐?”

부친의 타이름을 들은 선군(仙君)은 정좌(正坐)한 채로 여쭙었다.

[A] “아버님, 불효한 자식 굶어 살피소서. 과거며 공명은 모두가 한낱 속물이 탐하는 헛된 욕심이옵니다. 우리 집에는 수천 석을 헤아리는 전답(田畓)이 있삽고, 비복(婢僕)이 천여 명이나 되며,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사운데 무슨 복이 또 부족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 되기를 바라시나이까? 만약에 제가 과거에 응시하고자 집을 나선다면 남자와는 이별하게 될 것이 온즉 사정이 절박하옵니다.”

하고는 동별당으로 돌아와 남자에게 부친과 주고받은 말을 전하였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랑이 그윽한 눈길로 선군을 타일렀다.

“과거를 보시지 않겠다는 남군님의 말씀이 그릇된 줄로 아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면 출세하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입니다. 그리하오나 남군께서는 어찌하여 저 같은 규중처자에 얽매인 나머지 장부의 당당한 일을 포기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불효가 되고 그 욕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니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하오나 남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속히 과거 준비를 하시고 상경하여 남의 웃음을 면하시도록 유념하소서.”

이처럼 말하면서 과거에 응시할 차림과 여정의 행장을 갖추어 주었다. 행장이 차려지자 남자는 다시 강경한 다짐을 선군에게 하면서,

[B] “남군께서 이번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낙방거사(落榜居士)*가 되어 돌아오신다면 저는 결코 살지 아니 할 것이옵니다. 하오니, 다른 잡념 일체를 버리고 오직 시험에 대한 일념으로 상경(上京)하셔서 꼭 급제하여 돌아오시기 바라옵니다.”

부모에게 들던 말보다도 남자에게 들으니 선군의 급제는 스스로 더욱 절실하게 생각되었다.

[중략 줄거리] 과거를 보러 간 선군은 이틀 밤이나 몰래 숙영을 만나고 갔는데, 숙영의 방에 있던 선군을 외간 남자로 오해한 백상군은 며느리의 정절을 의심하여 시비(侍

婢) 매월을 시켜 숙영을 염탐하게 한다. 매월은 숙영이 정실부인으로 오기 전 선군에게 사랑받았던 몸종이었는데, 숙영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차에 간계(奸計)를 꾸며 누명을 씌운다.

숙영 남자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흐느껴 울자, 백공(白公)은 크게 노하여 큰 소리로 꾸짖었다.

“무엇하구나, 닥쳐라! 내 두 귀로 직접 듣고, 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내가 끝내 속이려 들다니, 너는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려고 하느냐? 양반의 집안에 이런 해괴한 일이 있음은 참으로 망측한 변괴다. 너와 상통한 놈의 이름을 대라!”

시아버지의 호령은 늦가을 서리만큼이나 차갑고 매서웠다. 그러나 죄가 없는 숙영 남자는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구김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무리 시부모님의 간택으로 육례(六禮)*를 치르지 못하며 느리라고는 하나 어이하야 그다지도 끔찍한 말씀을 하시나이까? 이처럼 억울한 일을 맞이하여 제가 누명을 벗기 위해 변명하는 것도 삼가 부끄러운 노릇이오나, 아버님께서도 상세히 조사해 보시옵소서. 제 몸이 지금은 비록 인간으로 되어 있다 하오나 빙옥(氷玉)같은 굳은 정절로 살아오다가 어이 이런 더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억만 번을 죽는다 하여도 사실에 없는 일을 어찌 여쭙오리이까?”

남자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고 이를 악물며 말하였다.

“지난번에 남군께서 길을 떠난 날 밤과 그 이튿날 밤 두 번을 삼십 리쯤 가다가 숙소를 정하였으나 저를 잊지 못하고 밤중에 집으로 몰래 돌아왔삽기에 제가 한사코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낸 일은 있었사옵니다. 그때는 어린 제 소견으로 시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봐 겁을 내어 지금까지 고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하오나 조물주가 그것을 밍게 여기시고 귀신이 그것을 시기하여 이런 찢지 못할 누명을 입은 듯하옵니다. 이제 와서 늦은 변명같이 되었사오나, 밝은 하늘이 날날이 살펴 아시오니 아버님께옵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시어 저의 정상(情狀)을 다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눈과 귀로 확인한 의심인지라, 백공은 점점 더 노하여 비복에게 더욱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호령하였다.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때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아아, 푸른 하늘은 무고한 이내 몸을 굶어 살피소서. 오월에 서리가 나리고 십 년을 원망해야 할 이 원한을 어느 누가 풀어 주오리이까?”

하고는 엎어져서 혼절하고 말았다.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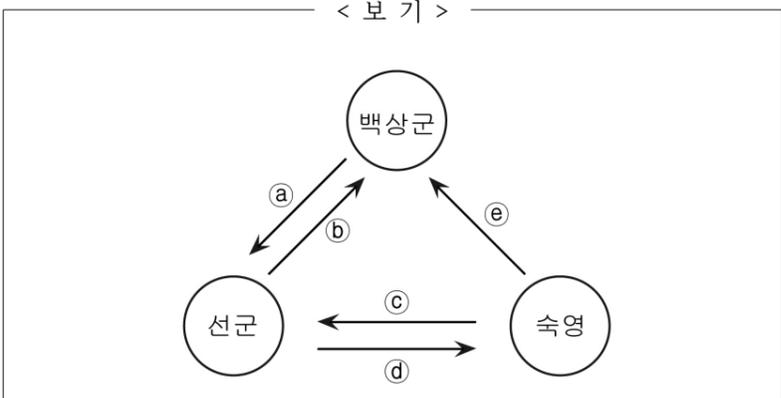
*낙방거사(落榜居士): 과거 시험에 떨어진 선비.

*육례(六禮):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5. [A] 부분의 말하기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
- ②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우회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 ③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 ④ 상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처지를 내세우고 있다.
- 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6. <보기>는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상군은 가부장적 질서와 가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인다.
- ② ㉡:선군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보다 부인과의 애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숙영은 자신에 대한 선군의 믿음을 의심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
- ④ ㉣:선군은 숙영의 말을 듣고 과거 응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 ⑤ ㉤:숙영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7. [B]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의환향(錦衣還鄉)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군.
- ②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처지에 놓일까 우려하는군.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을 하게 될까 염려하는군.
- ④ 수구초심(首丘初心)의 마음이 절실하군.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고 위로하는군.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년 고3 4월 - 숙영낭자전)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남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오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관방에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남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선군은 남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남자의 방에 들어가니, 남자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남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리시다가 도중에 천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남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남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남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외까?”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나이다.”

이어서 남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나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옵소서.”

하고 서로 이별하려 했다.

이때 마침 상공이 동별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남자의 방에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혼자 말하기를,

“이상하도다. 남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오?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천여 명이 나 있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고?”

하며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거라.

남자는 시아버님이 문밖에 오신 줄 알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아가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며 끝내 남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남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빠 숙소로 돌아가소서.”

하니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남자에게 물었다.

“네 남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네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노라. 그런데 또 어젯밤에 네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어찌 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에 남자가 대답했다.

“밤이면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남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하여 매월을 따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하니 매월이 아뢰었다.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요사이 남자의 방에 간 일이 없나이다.”

상공이 더욱 수상히 여겨 매월을 꾸짖어 말했다.

“요 며칠 사이에 밤마다 남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남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도다. 어떤 놈이 남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도다. 너는 남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남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의 방에서 이상한 자취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자를 질투하던 첩 매월은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남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며 상공을 속인다.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남자를 심문한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남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니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으리오?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듯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님께서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시옵소서.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곧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나이다. 게다가 남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 준 인연이 분명하거늘,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나이까? 아무리 욕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하며 목 놓아 쉼게 우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더라.

그러나 상공은 남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재상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일이다. 하물며 네 방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오?”

하고 하인에게 호령했다.

“각별히 엄하게 매질하라!”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남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고운 남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

남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사이 남군이 두 번 왔다 갔나이다. 남군이 **과거 보러 떠나던 날** 겨우 삼 십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

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저리 달래어 보냈나이다. 그런데 또 다음날 깊은 밤에 남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나이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나이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아뢰며, 또한 남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나이까?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남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기절하더라.

-작자 미상, 「숙영남자전」-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9.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군’은 ‘남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 ②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남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 ③ ‘상공’이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남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④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남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 ⑤ ‘상공’은 ‘매월’이 최근에 ‘남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숙영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을 꿈꾸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 ① 남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남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남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④ 선군이 남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 보러 떠나’는 것에서 입신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남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선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군.

11. ㉠에 드러나는 ‘남자’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맥수지탄(麥秀之嘆)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년 수능완성 - 숙영낭자전)

이때는 선군의 나이가 열여섯 살 되던 때였다. 어떤 봄날 선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몸이 노곤하여 책상에 기대어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문득 녹의 홍상으로 단장한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 번 절하고 옆에 앉더니,

“도련님은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 있기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였다. 이에 선군은,

“ 나는 진세의 속객이요, 남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하오?”

하고 의아하여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도련님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이셨는데, 비를 그릇 내리신 죄로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오셨으니 장차 저와 상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선군이 기이하게 여기던 중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남가일몽이었고 방 안에는 선녀의 이상한 향기가 가득했다.

그 뒤로부터 선군은 그 남자의 고운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맑은 음성이 귀에 쟁쟁히 남아 있어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무엇을 잃은 듯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며 용모가 초췌해지고 안색이 곧 죽어 가는 사람처럼 안 좋게 바뀌었다. 선군의 부모가 이 아들을 보고 우려하여,

“ 네 병세가 심상치 않으니 무슨 소회가 있거든 숨김없이 말하거라.”

하고 물었다. 선군은 대답하기를,

“ 별로 소회는 없사오나 웬지 모르게 심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사오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였다. 서당으로 물러 나와서 고요히 누워 오로지 남자만 생각 하고 만사에 무심히 지내노라니 이때 홀연히 그 남자가 나타나서 앞에 와 앉으면서 선군을 위로하기를,

“도련님이 저를 생각한 나머지 이토록 병이 되었으니, 어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한 가세 빈한함이 근심되므로 제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 화상은 도련님 침실에 두고 밤이면 안고 자고, 낮에는 병풍에 걸어 두고 도련님 심회를 풀도록 하세요.”

라고 하였다. 선군이 반가워 남자의 손을 잡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문득 남자는 사라져 버렸다. 잠을 깨고 보니 남자의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이 옆에 놓여 있었다. 선군이 기이하게 여겨서 금동자는 상 위에 올려놓고, 화상은 병풍에 걸어 두고 주야로 한때도 그 옆을 떠나지 않았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선군의 이런 소문을 듣고 신기하게 여겨, ‘백선군의 집에 기이한 보배가 있다.’하고 각각 채단을 가지고 와서 주고 구경을 했다. 따라서 백선군의 집은 형편이 점점 나아져서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선군은 날이 갈수록 사모하는 이는 오직 남자뿐이라 실로 가련하였다.

마침내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뺏속 깊이까지 들어 백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 누가 살려 낼 수 있겠는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선군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우여곡절 끝에 남자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부모는 아들이 공부에 전혀 뜻이 없는 것을 탄식하던 차,

“너희 두 사람은 천정연분이 틀림없도다.”

하면서 선군을 불러,

“이번에 알성과(謁聖科)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으니 너도 꼭 응과(應科)하라. 요행히 방(榜)에 들면 네 부모도 영화롭고 조상을 빛내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선군이 과거 길에 오르기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선군이 말하기를,

[A] “우리 집에 수천 석 전답이 있고, 비복이 천여 명이며, 십 리지소택(十里之沼澤)*과 이목지소호(耳目之所好)*를 마음대로 하는 처지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아치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만일 제가 과거를 보려고 집을 떠나면 남자와는 수개월 동안의 이별이 되겠으니 사정이 절박합니다.”

하고 동별당으로 돌아와서 남자에게 부친과 주고받은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남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B]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남군의 말씀이 그롭니다. 남아가 세상에 나면 입신양명하여 부모께 영화를 뵈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군은 규중처자를 연연한 나머지 남아의 당당한 일을 폐하고자 하니, 부모에게 불효가 될뿐더러 세상 사람들의 꾸지람이 마침내 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남군은 재삼 생각하여 빨리 과거 행장을 차리고 상경해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노자를 준비하여 주면서,

“남군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낙방 거사가 되어서 돌아오시면 제가 죽고 말 테니 다른 잡념 다 버리고 가서 떠나십시오.”

하였다. 선군이 그 말을 들으니 말마다 절절히 합당한지라 마지 못하여 부모에게 하직하고 다시 남자에게

“당신은 내가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부모를 잘 모시고 애들과 함께 기다리시오.”

하고 과거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와의 이별이 슬퍼서 한 걸음에 돌아서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연연한 정을 금하지 못하므로 남자도 중문 밖까지 나와서 먼 길에 몸조심하라고 재삼 당부하면서 슬픔을 금치 못하였다. 선군은 수심에 찬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여 발걸음이 무거

워 그날은 종일토록 삼십 리밖에 가지 못하였다. 주막에 들러서 저녁상을 받고도 오직 남자 생각만 간절해서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여 두어 술 뜨다가 상을 물리치니 하인이 민망히 여겨서

“식사를 그렇게 안 하시면, 앞으로 천 리길을 어떻게 가시렵니까?”

하니 선군이

“아무리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으니 어찌겠느냐.”

하였다. 선군은 적막한 주막방에 앉아 있노라니 마음이 산란하였다. 남자가 옆에 있는 듯하되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듯하되 귀를 기울이면 들리지 않았다. 바늘 밭에 앉은 것처럼 마음을 진정치 못하다가 마침내, 이경 끝에서 삼경 초에 신발을 들메고 집에 돌아와 담을 넘어서 남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을 깬 남자가 깜짝 놀라서,

“남군님, 이 밤중에 어떤 일입니까. 오늘 길을 떠난 분이 다시 돌아오셨으니 어찌한 일입니까?”

하니 선군이 대답하기를,

“종일토록 가다가 겨우 삼십 리를 가서 숙소를 정하였으나 다만 그대 생각뿐이라, 첩첩이 쌓인 비감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밥도 먹히지 않고 도중에서 병이 될까 염려되어 한 번 더 그대를 보고 외로운 심회를 풀려고 왔소.”

하고 정회를 풀었다.

— 작자 미상, 「숙영남자전」

* 십리지소택: 십 리나 되는 못.

* 이목지소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

1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군은 선관일 때의 자기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 ② 선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든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 ③ 선군이 그린 병풍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선군의 집은 부유해졌다.
- ④ 남자가 준비한 노자를 건네받은 선군은 마지못해 과거 길에 올랐다.
- ⑤ 선군이 주막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하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13. 윗글에 나타난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잠 - ㉠ 꿈속 만남 - 잠 - ㉡ 꿈속 만남

- ① ㉠은 ㉡과 달리 등장인물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등장인물이 소망하는 바를 일시적으로 실현 시키고 있다.
- ③ ㉠은 등장인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은 등장인물의 의구심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은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과 ㉡ 모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여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14.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남의 이목을 설득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 ③ [A]는 긍정적으로 예측되는 결과를, [B]는 부정적으로 예측 되는 결과를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④ [A]는 집안 형편과 개인적 상황을 근거로, [B]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상대방 견해의 논리적 모순점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1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숙영낭자전」은 전기적(傳奇的) 성격이 강한 애정 소설로, 유교적 이념이 중시되면서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의 감정이 억압되었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숙영 낭자와 선군의 애정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에서 이어진다고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유교적 가치관과 남녀의 사랑을 중시하는 개인적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두 사람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 ① ‘천상의 선녀’였던 낭자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이었던 선군이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천상계의 인연이 지상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선군이 낭자에게 건네받은 ‘화상과 금동자 한 쌍’이 낭자가 사라진 뒤에도 선군의 옆에 놓여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만남에 전기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선군이 ‘소회’를 묻는 부모에게 낭자의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이 억압되었던 조선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군.
- ④ 선군에게 과거 길에 오를 것을 재촉하는 것은 선군의 부모가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선군이 과거 길에 올랐다가 ‘담을 넘어서 낭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유교적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년 고3 4월 - 옥주호연)

삼아(三兒) 점점 자라 십 세에 미치매 절세한 용색과 선연(嬋妍)한 품성이 비상특이하고 문견(聞見)이 통하고 민첩하여 시서백가(詩書百家)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陣)을 벌이며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거늘 왕씨 알고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왈,

“여자의 도(道)는 내행(內行)을 닦으며 방적(紡績)을 힘써 규중 외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外道)를 행하여 고인에게 득죄함을 감심(勘審)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도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됨이라. 만일 네 부친이 아시면 특별히 대죄할 것인데 내 차라리 죽어 모르코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하뇨?”

삼소저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죄 왈,

“소녀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 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이 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어 다만 탄식뿐이러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새 유생이 다다라 보고 대경하여 궁시와 병서를 다 불지르고 왕씨를 몹시 꾸짖으며 왈,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떤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자주, 벽주, 명주)는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는다. 진원 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육 인(六人)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육 인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뺏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차설. 육 인이 원양성 십 리에 주둔하고 계교를 의논할 새 명주 왈,

“**㉔**여차여차 하면 어떠하뇨?”

최완이 대희 왈,

“그대 말이 정히 내 뜻과 일반이라.”

하고 명일 이른 아침에 최완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 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 왈,

“아등(我等)이 태수께 고향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문루에 올라 바라본 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汝等)은 어떤 사람이완대 성에 들고자 하느냐?”

양인(兩人)이 왈,

“아등은 절강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향 말씀이 있을 때 문을 열어 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 들이니 양인이 천연히 들어와 장하에서 읊고 왈,

“아등은 원래 물화를 가지고 태원성에 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윤이 물화를 다 앗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키어 우리 만일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검과 궁시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리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 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삐 여겨 잔명을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파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술을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諫)왈,

“양진이 상대하매 천만 가지 계교로 진중 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냐. 익히 생각하여 타일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명주 읊 왈,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바라고 투항하였더니 이제 이렇듯 의심하매 가위 진퇴유곡이라.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뉘이랴도 장군을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단검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 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 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오.”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으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심복이라. 일을 지체하면 후환이 되리니 삼일 후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㉕**여차여차 뺏치면 아등이 합력 내응하리라.”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양인이 본진에 돌아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를 이르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일천 군마를 거느려 대진 뒤에 매복하고, 최완은 이천 군을 거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 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가 삼경 후 북병에게 패한 체하고 북문을 열라 하며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고 나와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일천을 거느려 땅굴 좌우에 매복하고 차일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광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완 등의 내용이라 하여 부장한양으로 성을 지키오고 스스로 군사를 재촉하여 크게 고함하고 짓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날날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북병이 일어나니 북군이 불의지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원양성으로

[A] 달아나니라. 차시 최완이 본진에 불 일어남을 바라보고
 원양 북문에 나아가 대호(大號) 왈,
 “우리 북한(北漢) 패군이니 빨리 문을 열라.”
 하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완이 급히 군을 몰아 짓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여
 대적하다가 최완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최완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충돌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맞아 십여 합
 을 싸울새 장임의 기운이 쇠진하여 달아나거늘 문득 벽
 주 고성 왈,
 “장임 적자는 달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기어 장임의 어깨를 맞추니 장임이
 몸을 번드쳐 말에서 떨어지매 최경이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하여 돌아가거늘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십여 합에 이르러는 자주의 칼이 번듯
 하며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말에서 내려 할
 일 없어 항복하는지라.

- 작자 미상, 「옥주호연」-

*득시지추: 기다리던 때를 얻게 된 때.

1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17.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북문을 개방하여 북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장임’은 ‘원견’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벽주가 한 번 쓴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에서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19.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